

우리 사회에서의 젠더 교육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윤후*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혐오, 성차별과 양성평등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 평등 인식을 담은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고, 법적으로 교육 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새로운 젠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내용으로는 성 평등 전반을 논의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과는 차별화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 혐오라는 용어의 이해와 여성 혐오로부터 비롯된 사회 전반의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젠더 교육에 앞서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주체인 대중매체와 학교교육의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에서 성차별과 양성평등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다음, 젠더 교육의 의미와 내용, 체계, 목표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여성 혐오, 젠더, 성역할 사회화, 성차별, 젠더 교육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대학원 재학 중

I.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회적 이슈 중 대표적인 것은 ‘여성 혐오’ 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혐오’ 라는 단어를 단순히 여성에게 혐오감을 가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성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이나 비하, 폭력, 성적대상화, 멸시 등이 모두 여성혐오인 것이다.¹⁾ 중 ·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초등학교에서도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인 ‘앙 기모띠’ 는 기분 좋다는 뜻의 ‘기모찌(氣持ちいい)’에서 유래해서 나온 표현이다. 이 단어 자체는 본래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것이지만, ‘앙 기모띠’ 는 일본 포르노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반응을 따온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BJ(개인방송 운영자)가 유행시킨 말이다. 학생들은 이 단어를 또래 여학생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²⁾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혐오는 더욱 심각하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상에서도 ‘니 애미 창X’ 라는 패륜적 욕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온라인 게임을 할 때에도 ‘느그 엄마’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비하하고 적대감을 부추긴다.

대학가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 성폭력사건’ 이 있다. 교양과목을 함께 수강한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무려 1년 동안 동기, 선배, 신입생,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두고 외모와 몸매를 폄하하며 막말과 음담패설을 일삼았던 사건이다. 고려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대나무숲을 통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남성들의 눈요깃거리와 성욕 해소를 위해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³⁾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결별한 연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며, 폭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권력적 우위를 가지려 할 때 나타난다. 2017년 11월 “서울시는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꼴인 88.5%(1770명)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⁴⁾ 실제 피해는 공식적으로 파악한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성희롱, 성폭행, 협박, 언어 · 정신적 · 신체적 폭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되다가, 성폭행이나 살인

1) 우에노 지즈코(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은행나무 p.37
2) “초등학생이 ‘앙 기모띠’ … 교실에 퍼진 여성혐오” ‘http://naver.me/FcCHRSr6’ (검색일 : 2018 6월 10일)
3) “여성 폄하·성희롱’으로 가득한 그들의 카톡방” ‘http://news1.kr/articles/?2692149’ (검색일 : 2018 6월 10일)
4)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했다’”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3591&code=11131100&cp=nv’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사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지고 있다.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음식점,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것이다. 가끔 공중화장실에 보면 ‘몰카, 신고가 예방입니다’ 같은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몰카에 찍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발견하여 신고하기란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다. 애초에 몰카는 여성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며, 여성들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옷을 갈아입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포르노로 둔갑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울, 조명, 나사, 시계나 화재경보기 등 일반적인 물건들을 소형 카메라로 둔갑시켜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사 불안에 떨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하여 음담패설을 일삼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물론이고, 혹시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격살인을 넘어, 실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 행위이다.⁶⁾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⁷⁾ 그러나 최근까지도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규제와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부실한 상태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과 불만의 표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 혐오 정서가 처음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 씨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이 사건은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 범죄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여성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라고 호명할 이유는, 공중화장실에 총 6명의 남성이 먼저 오갔지만 이후 처음으로 들어온 여성이 범죄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⁸⁾ 여성들은 이 사건이 명백히 여성을 겨냥한 범죄였

음을 지적했다.

약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018년 1월 14일 ‘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폭행 사건’이다. 이는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지난 14일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여·20)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인천여성연대는 이번 범죄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두 사건 모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을 둔 폭력 범죄라고 단언했다. 여성들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파, 저 여성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둔기로 내려쳤다는 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폭행 사건 범인 모두 여성들이 ‘감히’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지저에 깔려있던 것이다.⁹⁾ 그래서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담론이 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관점에서 비롯된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젠더가 왜곡되어왔으며, 성역할 사회화가 부모나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 대중매체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해 더욱 굳어지게 됨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성차별 및 양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젠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젠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종래에는 젠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탐색해가는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할 것이다.

II. 성적인 것

성을 생물학적 범주에 한정시켜 인식하는 태도에 문제가 제기되어 성을 역사적,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는 담론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성은 생물학적 성(sex)이외에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말의 성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담론이 성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¹⁰⁾

섹스는 남녀를 신체 구조, 즉 “외부 생식기(남성은 음경과 고환, 여성은 클리토리스와 질)와 내부 성 기관(여성은 난소와 자궁, 남성은 전립선)¹¹⁾”을 기반으로 구분하거나,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신체 중심적, 특히 성기 중심

5)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을 말하며, 보복성 영상물도 포함한다.

6) “‘몰카 유희’ 디지털 성범죄, 근절할 수 있을까”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36156>

7) 정부24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8) 이경희(2017). 여성혐오와 윤리상당. 윤리교육연구, 44(0), p.220

9) “‘여성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폭행사건”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aver.me/FbGW9xDc>

10) 송무 외 공저(2003). 젠더를 말한다. 서울:박이정 p.107

11) 줄리아 우드(2006). 젠더에 관한 삶 :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29

적으로 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은 배제한 채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성을 이해하는 한계가 지적된다.¹²⁾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행동양식, 태도나 가치, 남녀의 관계성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¹³⁾ 젠더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그 사람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 의해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섹스가 생물학적 성이고 젠더는 사회적으로 학습, 구성된 것이라는 개념적 구분은 19세기 이후 여성운동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젠더가 여성성, 남성성을 구성하고 젠더가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면 이는 생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¹⁵⁾ 섹슈얼리티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다기보다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the sexual)’에 가까운 의미로, ‘육체적 성행위에서 확대되어 성적 실천과 정체성, 성적 욕망, 감정과 관계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⁶⁾ 특히 섹슈얼리티는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된 개념이기에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침해는 성희롱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¹⁷⁾

III. 성역할 사회화

성역할 사회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젠더 역할’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젠더 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뜻한다.¹⁸⁾ 전통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으며, 육아도 오로지 여성의 몫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젠더 역할의 구분은 남녀 사이에 상하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이는 곧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로 이어졌다.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었기에 보통의 젠더 역할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변화가 찾아왔다. 여성들은 더 이상 가

12) 김대균(2015). 윤리교육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윤리학회, 102(0), p. 306
 13) 김대균(2015), p306
 14) 한국여성연구소(2015). 젠더와 사회. 파주:동녘 p.64
 15) 여성문화이론연구소(2015).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동녘 pp.338-339
 16) 부산대 여성연구소(2011). 왜 아직도 젠더인가?. 부산:부산대학교 출판부 p.101
 17) 김대균(2015), p.307 으로부터 재인용
 18) 서백임(2017). 대학생 남녀의 성인애착, 심리적 통제성,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자아를 실현해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전히 기존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여성에 대한 젠더 역할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억압과 혐오를 통해 끊임없이 여성의 영역을 제한시키려 한다.¹⁹⁾

『제 2의 성』을 저술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통 소녀나 성인 여성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가녀리고 연약한 모습을 주로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상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것, 즉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는다. 만일 여성이 사회가 규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부장적 사회의 관점은 이를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여성들은 소녀시절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진취적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주체적 자아가 점점 약해지고, 끝내는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다.²⁰⁾

성역할 사회화는 부모나 또래 친구, 학교, 대중매체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해 더욱 굳어지게 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나 행동을 모방하면서, 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 친구들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성역할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등의 대중매체일 것이다. “대중매체는 사회 현실을 정의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줌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매체에서 남녀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묘사하는가는 그것을 수용하는 개인은 물론 한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 및 행동양식, 나아가서는 사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¹⁾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젠더 이미지는 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의 소비물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것이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눈요깃감 정도로 전락시켜버린다. 다양한 매체의 전파 속도와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도 대표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오늘날 학교 문화는 공식적인 부분에서 성차별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 학교문화는 양성평등 지향적인 경

19) 권혁남(2017). 데이트 폭력 문제 :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8(4), p.1148
 20) 이윤애(2013). 여성과 콤플렉스. 열린전북, 167(0), p.32
 21) 임정민(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학지사 p.85 으로부터 재인용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문화는 무의식적(잠재적)으로 혹은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많은 성차별적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험하는 많은 것이 성역할 학습과 연관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교사들의 고정화된 관념, 성불평등적인 조직 구성, 성차별적 교과과정 및 내용 속에서 학생들의 성역할 사회화는 더욱 차별적으로 진행된다.²³⁾ 학교는 성역할을 재생산해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나가야 할 것이다.

IV. 젠더 교육

1. 고등학교 교과서 검토

도덕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양성평등과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핵 교과이다. 정부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한다.²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엔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2 교육과정 교과서는 대단원 ‘II. 생명 · 성 · 가족윤리’의 하위단원인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성차별과 양성평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여성 해방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부각시켰고,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등 성차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얻어진 양성평등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²⁵⁾ 미래엔 교과서는 성차별이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기술하며, 성차별의 사례로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과 업적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발췌한 내용에서 보다시피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했지만,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 시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차별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민주적인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이미 이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인 성별 권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기서 파생되어온 여성 혐오가 만연한 것은 물론, 공직 사회 또는 직장 내에 유리천장이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2016년 기준 63.3%로 성별 임금격차가 36.7%에 이르러 한국은 OECD가 남녀의 임금격차 통계를 조사한 2000년부터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²⁶⁾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대단원 ‘Ⅲ. 사랑과 성 윤리’의 하위단원인 ‘사랑과 성의 윤리’에서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성차별을 다루고 있다. 먼저 보부아르가 저서 『제2의 성』에서 언급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라는 문구를 통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젠더적 시각에서 성차별의 내용을 기술했다. 또한 유리 천장 지수 삽화를 통해 현재 성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소 개선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은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차별은 남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²⁷⁾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 문제다.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여성이 약자고, 대부분 피해를 입는 쪽은 여성이다.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에게 중점을 두어야 여성이 받는 성차별이 희석되지 않는다.

기존의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 성차별과 양성평등이 담겨있는 내용은 겨우 한 페이지 남짓이며 이는 교사의 재량으로 단순 설명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교과서 페이지 양만 늘린다고 학생들의 성 평등 인식이 높아지거나 여성혐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심사숙고하여 개정된 교과서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내용 개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여, ‘젠더 교육’을 제안하려 한다.

2. 젠더 교육

‘젠더 교육’이란 성별에 따른 왜곡된 태도와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을 극복해나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젠더 교육은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가르

22) 정순미(2006).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방안 연구. 국민윤리연구, 61(0), p.293

23) 임정빈(1997), p.78

24) 김대용(2017).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인식과 그 비민주성. 교육철학연구, 39(1), p.2

25)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미래엔 pp.71-72

26) “[인권을 말한다①] 한국여성, 95일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24>

27)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미래엔 pp.67-68

치는 것이다. 성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진화되는지 배우기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 젠더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공교육 차원에서 통합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일상에 만연한 물리적, 언어적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²⁸⁾

젠더 교육은 성교육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성교육은 생물학적 영역의 이해를 돕고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성폭력 예방이라는 것이 성 평등 전반에 대한 논의하거나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²⁹⁾

또한 젠더 교육은 인권교육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³⁰⁾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여성 인권은 늘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뭉뚱그려져 이야기되어 왔고, 그러다보니 늘 여성 인권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차별을 받고 있으니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어서도 안 된다. “현재의 성차별이 남성에게는 이득을, 여성에게는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³¹⁾ 인권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이름 아래 젠더 교육이 묻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성의 제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젠더교육을 위해서는 성 평등 인식을 담은 젠더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고, 법적으로 교육 시간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 교과 편성이 어렵다면 교과과정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성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구조적인 젠더 권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거서 파생된 여성 혐오, 현재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에서 성 상품화, 젠더가 왜곡된 사례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찾아보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젠더 교육은 페미니즘과 목소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기회 평등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지만, 페미니즘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들이 세워놓은 여성의 관념에 의해 남성 또한 상관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로 전락했다. 남성 역시 지배적 사유 구조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 상황에 놓여있다.³²⁾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 ‘여자들은 약하고 툭하면 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들은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스스로 주입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프레임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인간(人間)’, 곧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성이고 사람의 삶을 모양 잡는 일에 관한 반성”³³⁾ 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신념이자 그 신념을 실현³⁴⁾하려는 것이다. 여성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이기에, 젠더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사회 구조를 다방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은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태도를 지닌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있어 발판이 될 것이다.³⁵⁾

그리고 젠더 교육은 도덕·윤리 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성은 생물학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상담은 주로 가치와 윤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젠더 교육은 존중, 배려, 절제 등 도덕의 본질에 속하는 핵심 요소와 연관되어 있기에 윤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성은 분명히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다른 인격체와의 만남, 그것도 진정한 만남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가 자기중심성의 탈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려, 다른 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배려와 깊이 관련”³⁶⁾ 되어 있기에 성은 엄연히 윤리적 영역이다.

젠더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사회가 부어하고 규정하는 젠더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는 당시 프랑스 등 서유럽의 보편적 ‘문명’에 직면한 독일인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타인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진실함, 자신만의 독특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찾는 것’ 이야 말로 남녀 모두가 여성혐오를 극복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⁷⁾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성성, 남성성의 굴레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나의 언어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 다양한 선택권과 취향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젠더의 해방이자 젠더 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28) “性 인식 뒤틀러도 ... ‘무늬만 성교육’ 고집하는 교육부”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aver.me/FqDvXeKE>
29) “성폭력 문제, 성평등 교육에서 해법 찾아야..”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radio.ytn.co.kr/program/?f=2&id=54633&s_mcd=0201&s_hcd=09
30)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31) “물통 들기 vs 외도 비교, 어떤 게 더 억울하죠?” <http://naver.me/Fw16Zb3n>(검색일 : 2018년 6월 11일)

32) 송무 외 공저(2003), p.12
33) 송무 외 공저(2003), p.12
34) 송무 외 공저(2003), p.13
35) “학생들은 “왜 여자 캐릭터는 요리하고 청소만 하느냐?”고 묻는다”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5/story_n_15819626.html
36) 박찬구(2012). 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서울:울력 p.59
37) 이경희(2017) p.238으로부터 재인용

V. 결론

젠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 팽배해있는 여성 혐오만 근거로 삼아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서 봤듯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고 끊임없이 재생시키는데 일조해왔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행 교육 또한 성차별 및 양성평등 문제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가치관이나 태도, 교과서의 내용 속에서 알게 모르게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해 왔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에 따른 왜곡된 태도와 편견을 바로잡고자 젠더 교육을 강조하였다. 젠더 교육은 성 평등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현행 성교육이나, 중립적 차원에서 포괄되어 이야기되어지는 인권교육으로 대체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성 평등 인식을 담은 젠더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고, 법적으로 교육 시간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젠더 교육은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절제 등 도덕 핵심 요소와 관련이 깊기에 윤리교육적 접근을 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자다움, 남자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도록 돕는 젠더 교육의 자리매김은 더욱 의미가 깊다.

참 고 문 헌

박찬구(2012). 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서울: 울력.

송무 외 공저(2003). 젠더를 말한다. 서울: 박이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2015).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임정빈(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부산대 여성연구소(2011). 왜 아직도 젠더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p.101.

한국여성연구소(2015). 젠더와 사회. 파주: 동녘 p.64.

줄리아 우드(2006). 젠더에 갇힌 삶 :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우에노 지즈코(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권혁남(2017). 테이트 폭력 문제 :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8(4), 1141-1157.

김대군(2015). 윤리교육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윤리학회, 102(0), 303-330.

김대용(2017).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인식과 그 비민주성. 교육철학연구, 39(1), 1-21.

서백임(2017). 대학생 남녀의 성인예착, 심리적 통제성, 성역할 태도가 테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숙,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장치” 『사회와 역사』, 제 76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이경희(2017). 여성혐오와 윤리상담. 윤리교육연구, 44(0), 219-247.

이윤애(2013). 여성과 콤플렉스. 열린진북, 167(0), 30-32.

정순미(2006).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 방안 연구. 국민윤리연구, 61(0), 277-305.

“초등학생이 “양 기모띠” … 교실에 퍼진 여성혐오“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aver.me/FcCHRSr6>

“여성 폄하·성희롱’으로 가득한 그들의 카톡방”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ews1.kr/articles/?2692149>

“여성 10명 중 9명 “테이트 폭력 경험했다”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3591&code=11131100&cp=nv>

“여성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폭행사건” (검색일:2018년 6월 10일)
<http://naver.me/FbGW9xDc>

“‘물가 유출’ 디지털 성범죄, 근절할 수 있을까”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

=0000636156

“性 인식 뒤틀려도 ... ‘무늬만 성교육’ 고집하는 교육부”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http://naver.me/FqDvXeKE>

“학생들은 “왜 여자 캐릭터는 요리하고 청소만 하느냐?”고 묻는다.”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5/story_n_15819626.html

“[인권을 말하다④] 한국여성, 95일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 (검색일 : 2018년 6월 10

일)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24>

“성폭력 문제, 성평등 교육에서 해법 찾아야..” (검색일 : 2018년 6월 10일)

http://radio.ytn.co.kr/program/?f=2&id=54633&s_mcd=0201&s_hcd=09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답변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물통 들기 vs 외모 비교, 어떤 게 더 억울하죠?” (검색일 : 2018년 6월 17일)

<http://naver.me/Fw16Zb3n>

정부24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Abstract

Gender Education in Our Society : Focused on High School

Lee, Yun-Hu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gender education in our society.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ethic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such as misogyny,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the textbooks that contain gender equality must be newly developed and educated. It is true that the content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currently covered in high school life and ethics textbooks are insufficient to discuss overall gender equality, and that existing gend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are needed to differentiate. Currently, the content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described in the high school life ethics textbook are insufficient to discuss general gender equality,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need for gender education rather than traditional sex education or human rights education.

First, we will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rm "misogyny" and the crime situation in society that resulted from misogyny, and then look at the concepts of sex, gender, and sexuality. Next, we will look into the process of gender role socializing and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the media and school. Next, we will analyze how and how the subject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is dealt with within high school <Living and Ethics> textbooks, and present the meaning, contents, system and goals of gender education.

Key Words: misogyny,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sexual discrimination, gender education

논문 투고일: 2018. 6. 06.

심사 완료일: 2018. 6. 12.

게재 결정일: 2018. 6. 30.